

“한강 노벨상 축하합니다” 광주·전남 행사 풍성



시상식 열릴 스톡홀름 시청사 2024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릴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건물 외벽에 한강 작가를 비롯한 역대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모습의 미디어파사드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오후 8시 시청 시민홀서 시민 축하 행사 도립도서관 저서 나눠주기·독서토론 등 다채 장흥군, 김성 군수 등 스웨덴에 축하 사절단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광주·전남에서 풍성하게 펼쳐진다. 광주시는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민 축하행사를 연다.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강연과 한강 작가에게 축하 편지쓰기, 홀로그래프로 부활한 작품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축하메시지 등으로 구성됐다. 신형철 서울대 교수는 "소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을 뛰어넘는 한강의 소설"이라고 평가한 배경과 5·18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스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강의한다. 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단체, 작가 등단을 준비하는 문예창작과 학생 등 평소 한강 작가의 작품과 문학을 즐기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축하의 장을 펼친다. 지역 선유배, 동료 작가들이 함께 시낭송과 시극을 통해 문학인의 밤을 수놓는다. 음악과 미술, 극예술 등 다양한 예술장르로 재탄생한 '한강의 시간'을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출신 재즈사운드 뮤지컬그룹 '솔뮤직컴퍼니'가 재즈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된 한강 작가의 자작곡 공연을 선보인다. 주홍 작가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를 특유의 미술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샌드아트를 선보인다. 또 극단 '신명'의 모노드라마는 '소년이 온다' 속 동호 어머니의 답답한 독백을 통해 아들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어머니의 고통을 전한다. 전남도도 이날 오후 4시 전남도립도서관에서 도민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 특강, 시낭송, 수상 축하 편지 낭독,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 등으로 치러진다. 도립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12회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책을 빌리는 도민 124명에게 선착순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한다. 전남도문인 협회에서는 '체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저서를 참석자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한강 작가가 당부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10일 오후 7시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체식주의자'를 읽고 서로의 감상평과 생각을 교류하기 위한 온라인 독서토론이 열린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도 참여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줌(zoom)에서 진행한다. 한강 작가의 고향 장흥군도 글로벌한 축하 행보에 나섰다. 장흥군은 지난 7일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현지에서 김성 군수를 비롯한 축하사절단을 파견했다. 축하사절단은 지난 8일 노벨박물관 앞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절단은 이날 주 스웨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문화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시상식 당일인 10일에는 스웨덴 현지에서 스웨덴 한인회와 함께 축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동시에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40분에는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와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한승원 작가가 살고있는 장흥군 안양면 울산마을 한승원 문학학교에서 주민과 관계자들이 모여 시상식을 관람하고 수상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변은진·양시원·정홍=노행록 기자

군공항 범정부협의체 무산 가능성 '솔솔'

국무조정실 "탄핵 정국 속 13일 개최 여부 불투명"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광주·전남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실무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국 혼란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군공항 이전 관련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의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기로 한 실무회의에는 광주시, 전남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국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실무회의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비상 시국인 만큼 실무회의의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변

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와 철퇴 이후 국정 운영 주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 동향과 향후 계획, 국가 차원의 군공항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정대로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토대로 후속 대응을 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 상황과 별개로 실무회의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아직 국무조정실로부터 일정 변동에 대해 연락받은 게 없다"며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은진 기자

“국힘 의원들 광주명예시민증 박탈해야”

서임석 시의원 “탄핵 표결 불참 내란 동조”...市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 수여한 광주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1)은 9일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명예시민증이 수여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탄핵 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소속 의원은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으니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김소희(비례대표) 의원이 광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광주 명예시민증은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장

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고 있다. 다만, 조례에 따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명예시민증 박탈을 검토한 바 없다”며 “현 시점에서 명예시민증 취소보다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이어가 탄핵 정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참하는 소통 창구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 연계 서비스

- 보건의료**
 - 방문진료, 방문구강관리, 대체약물관리, 건강강진,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만성질환관리, 호스피스
- 장기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재택의료센터
- 돌봄**
 - 식사·청소관리, 병원동행
- 주거**
 - 주거환경개선, 케어안심주택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밀양시,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대덕구, 유성구, 경기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청양군, 전북 전주, 정읍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의성군, 경남 김해시, 제주 제주시
- 시범사업 참여 상담 신청**
 - 시범사업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 시범사업 안내 및 문의**
 - 지역별 문의처는 QR코드로 확인 [시범사업 안내 게시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년 3월) 2026년 3월, 통합지원 전국 시행 예정

